

#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교착상태 장기화 우려

### 8일 만남 앞두고 7일 취소...제재완화·검증 조율 난항 분석

11·6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8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됐다.

국무부의 이날 발표는 중간선거 직후 아시아시간인 7일 0시경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8일 김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뉴욕을 방문할 것이라는 국무부 발표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국무부는 북미고위급 회담의 취소 사유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루 사이에 북미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이 당초 7일 오후 1시 베이징발 뉴욕행 비행편을 예약, 그 일행이 6일 오전 고려항공 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갑자기 예약이 6일 오전에 취소되고 공항에서 김 부위원장의 모습도 목격되지 않아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된 상태였다.

특히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은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7일 4차 방북 이후 담

보상태를 보여준 북미간 대화의 본격 재개를 의미했다는 점에서 자칫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미 간 비밀 논의와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등 실행계획이 논의될 예정이었던 고위급회담이 연기되면서 양측이 내년 초로 물밑 조율을 벌여온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일정이 영향을 받게 될지도 주목된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실천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기 위한 비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미국 측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 더해 '플러스알파(+α)'로 영변 핵시설 사찰 문제 문제까지 논의, 진전을 이룬다는 복안으로 알려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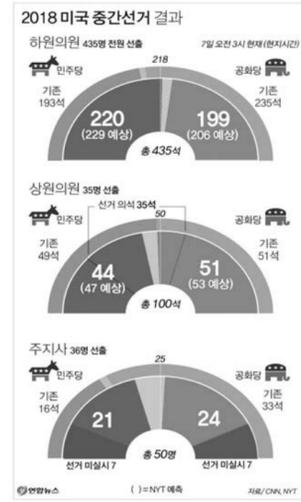
그러나 북한은 최근 핵 개발·경제건설의 '병진 노선' 부활 가능성까지 위협하며 제재완화 공세 수위를 높여왔고, 이에 맞서 미국은 '선(先) 비핵화-선(先) 검증'을 제재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궁극적 목표 달성 때까지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제재완화와 검증·사찰 문제를 두고 양측간 긴 싸움이 고조돼왔다.

이에 따라 제재완화와 검증 문제를 둘러싼 이견 조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회담이 일단 무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공화 상원-민주 하원 '미 의회 권력 분점'

### 美 중간선거 어느 당도 확실한 승리 못해 2년간 정치분열 심화될 듯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

6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의 11·6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집권여당인 공화당이 오히려 의석을 더 늘리며 과반 의석을 굳게 지킬 것으로 보여, 미국 의회 권력은 '상원-공화, 하원-민주'로 분점(分占)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첫 심판에서 어느 한 쪽도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오는 2020년 대선까지 남은 2년 동안 미국 정치의 분열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언론사들이 이날 밤 일제히 발표한 예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435석 전체를 다시 선출하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을 누르고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됐다. NBC 방송은 민주당 230석, 공화당 205석으로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등극을 예상했다. CNN 방송도 7일 오전 3시 현재 민주당이 218곳에서, 공화당이 198곳에서 각각 앞선 것으로 집계했다.

이러므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지난 2년간 일방적으로 독주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내일은 미국의 새로운 날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하원 탈환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검제와 균형을 복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선거운동 초반인 9월 초만 해도 판 전체를 뒤엎을 것으로 예상됐던 '블루

웨이브'(민주당 바람)가 민주당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CNN은 "현재까지의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을 '블루 웨이브'라고 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반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NBC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중전보다 3석 늘어난 54석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고, CNN과 NYT는 이 시각 현재 공화당이 51석을 확보해 44석의 민주당을 앞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규정하고, 특히 '상원 수석'에 총력전을 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며 승리를 자처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남북 보건회담 개최 7일 오전 북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보건교류협력 분과회의에서 남측 대표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동철 보건성 부국장, 박철진 조평통 차장,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역원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통일부 김병대 인도협력국장, 보건복지부 권준호 건강정책국장. /연합뉴스

# "광주·전남, 남북교류 에너지·소재부품·농업 우선돼야"

### 광전연 TF팀 주장

광주·전남이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소재부품, 농업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 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남북교류TF팀은 7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출발점, 광주전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협력과 교류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사업의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교류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금 조성, 조례 제정·정비, 맞춤형 교류를 위한

중장기 구상안을 준비 중이다. 광주·전남도 과거에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을 재검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협력사업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북교류TF팀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크고 지역에 대한 선투자가 필요한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남북전력망 구축 협력사업, 지하광물 자원 활용 미래 첨단산업분야 협력사업, 북한 농업 관련 경제개발 연계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화 정착을 위한 교류협력 분야로는 농업, 환경, 문화·관광·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단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 식량문제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북한지방과 교류

확대를 이어가는 중장기적 아이템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특색에 맞는 분야는 개별적으로 남북협력사업 준비를 하고, 전략적 선점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분야는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총괄 콘트론타워로서(가칭) '광주·전남 대북 경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설립도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전남 벼 재배 면적 10년새 15% 줄었다

2017년 12만6430ha  
쌀 생산량 8.6% 줄어

최근 10년간 광주와 전남 지역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벼 재배면적은 12만6430ha로 10년 전인 2008년(19만5747ha)에 비해 15% 감소했다.

광주는 2008년 6516ha에서 2017년 4988ha로 23.4%, 전남은 18만9231ha에서 16만1442ha로 14.7% 각각 줄었다.

쌀 생산량은 2008년 93만2497t에서 8.6% 줄어 2017년 85만2580t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2008년 3만1195t에서 2017년 2만5418t으로 18.5%, 전남은 90만1302t에서 82만7162t으로 8.2%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쌀 생산량 비중은 전국 생산량의 21.5%를 차지했다.

채소 재배면적은 2017년 4만3670ha로 10년 전보다 17.9% 감소했다. 생산량은 2008년 215만6144t에서 2017년 198만21t으로 8.2% 줄었다. 채소 생산량은 전체 면적의 24.1%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기무사 장교들 '계엄문건 참여' 숨기려 수사방해 허위 TF 구성 연구계획서 작성 3명 불구속 기소

"국군 기무사령부 장교들이 계엄령 문건작성에 참여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조직적인 방해공작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관련 의혹 근·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엄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연습 기간에 훈련용

으로 생산된 것처럼 가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엄문건 작성에 참여한 기무사 장교들이 나중에 문건 내용 등이 문제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조직적 공작을 벌인 것으로 합수단은 의심하고 있다.

이 장교들은 당시 '계엄문건작성 TF팀' 소속으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 문건작성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가 군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전직 기무사령부 참모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재배당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펜션·가든 부지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함께 하면 든든 육아 성공비법

직장난치문화 제로법  
슈퍼맘 방지법  
육아대디 지지법  
육아훈수 주의법  
든든육아 동참법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 2019학년도 전남대학교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2회, PM 7~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 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입학원서 작성	2018. 11. 05.(월) ~ 11. 19.(월)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8. 11. 05.(월) ~ 11. 19.(월)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창구 2018. 11. 05.(월) ~ 11. 19.(월) 09:00~18:00
전형일정	2018. 12. 04.(화) 10:00 ~
합격자발표	2018. 12. 20.(목) 11:00(산대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신원경농생명/식품-외식산업학/지역발전자원공학/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